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신뢰 구축

전남도 공동방역 신고제 운영

친환경 인증취소 농가 지원 제한

잔류농약 분석성분 511종으로 확대

전남도가 올해부터 정부가 잔류농약 분석성분을 320종에서 511종으로 확대함에 따라 공동방역 사전신고제, 인증취소 농가 지원 제한 등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그동안 추진한 다양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 대책과 강력한 보조금 회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증 포기 및 일부 농가 생산물에서 잔류농약 검출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올해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역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 공동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는 공동방역 날

짜, 유기농업자재와 사용량 등이 포함된 공동방역 확인서를 방제 전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농업단지 대표는 공동방역 현장에 입회해 사용되는 자재가 유기농업자재가 맞는지, 합성농약 등 금지물질을 혼합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시·군은 합성농약 등 금지물질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농가 입회하에 수시로 시료를 채취 검사하는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320종이던 잔류농약 분석성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으로 올해 10월부터 511종으로 확대된다. 전라남도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에 대비해 지난해 잔류농약 분석성분을 511종으로 늘려 검사를 했다. 그 결과 87농가가 위반해 인증이 취소돼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 농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인증취소 농가는 보조금 회수와 함께 1회 인증취소 시 3년간, 2회 취소 시 5년간 친환경농업 관련 도비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공동방

제 시 금지물질을 혼용해 사용한 공동방역 위탁 사업자는 친환경농업 분야 사업 참여를 영구히 막을 방침이다.

전남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긴밀히 협조해 인증취소 농가와 원인제공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일부 농가와 공동방역 사업자의 일탈로 친환경농업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다수 농업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한 지난해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4만5928ha로 전국의 56%를, 유기농 면적은 2만3770ha로 전국의 61%를 차지했다. 특히 전남지역 유기농 면적은 도내 총 친환경 인증면적의 51.7%로 무농약 면적을 추월, 역대 최대면적을 경신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청년정책 플랫폼' 운영

청년 일자리 발굴 전문가 토론회

전남도가 최근 전남도의회에서 청년정책 플랫폼(협의체)의 운영과 청년이 선호하는 안정적 일자리 발굴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 신민호 전남도의원, 김두철 고용혁신추진단 수석연구원, 신나라 청년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신민호 전남도 의원은 지난해 10월 도정질의를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공사·출연기관, 공무원 등 지역내 채용 목표관리제,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등을 위한 담당 부서장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플랫폼(협의체) 구성을 주문한 바 있다. 토론회는 심미경 광주전남연구원 책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15일 오후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청년정책 플랫폼 운영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연구위원의 '청년정책 플랫폼(협의체)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마련' 주제 발표와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로 이어졌다. 토론 내용은 ▲청년정책 플랫폼(협의체) 운영방안 ▲지역내 채용 목표관리

제 운영방안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 창출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등이다. 청년정책 플랫폼(협의체)은 4개 분야 6개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전국 확대

전남도가 기관별로 제공하던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를 1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예비맘은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신·출산 진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엽산제·철분제 지원 ▲KTX 이용 할인 ▲표준모자보건수첩 등 전국 공통 서비스 14종과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현물서비스의 경우 사전결제를 하면 비대면으로 택배를 받을 수 있어 임신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게 된다.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이용을 바라는 임신부는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온라인으로 신청(정부24)하거나 시군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는 2020년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임신부가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해남, 함평, 완도를 비롯한 전국 20개 지자체에서 시범 추진했다. 출생 신고와 동시에 출산 관련 각종 서비스를 통합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도 2016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코로나19로 외출이 특히 부담스러운 시기에 도내 임신부가 마음 편히 임신지원 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아이 출산을 위한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가고 싶은 섬' 온라인 잡지 창간

섬발전센터 매월 누리집에 소개

'가고 싶은 섬' 주민의 일상과 명소를 그들의 시선으로 담아낸 온라인 잡지가 창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첫 번째 진도 관매도편이 '가고 싶은 섬' 누리집에 게시됐다.

이번 4월 관매도편을 시작으로 매월 이달의 '가고 싶은 섬'을 정해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가 직접 기획·취재해 콘텐츠로 만들어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시옷'은 '섬에 대한 물음표를 지워드립니다'를 부제로 단순 여행지로서 섬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섬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해 소개한다. '가고 싶은 섬'의 섬 여행 정보에 숨겨진 진면목을 전달하기 위해 섬의 일상, 주민의 이야기에 집중해 다룬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로컬관광 모델로



전남도가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의 주민주도형 로컬관광지원 발굴을 통한 전남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16일 나주지역 주민사업체를 방문, 현장 소통 및 정책행정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올해 신규 관리지역으로 편입한 나주 주민사업체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사업체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돼 3년간 국도비

15억원을 들여 지역 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사업체 발굴 및 육성, 주민사업체 홍보 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병주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스스로 발굴한 아이디어를 창업단계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관광수요에 걸맞은 특색 있고 차별화한 관광 분야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4월 명품숲에 강진 주작산 철쭉숲 선정

전남도가 20일 4월 방문해야 할 전남의 명품숲으로 '강진 주작산 철쭉숲'을 선정했다.

전남도는 숲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가 높은 숨어있는 보물숲을 휴식과 힐링의 여행 명소로 알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달의 명품숲'을 선정해 홍보하고 있다. 그동안 소개된 명품숲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 가족 단위 소그룹 형태의 여행 취향에 맞는 계절별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주작산은 봉황이 강진만을 향해 힘차게 날갯짓하는 형상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숲은 강진군청에서 완도 방향으로 약 20km 떨어진 도암면을 지나 신전면 주작산자연휴양림에 있다.

3월부터 도암면 만덕산과 신전면 주작산 능선까지 50ha에 걸쳐 연분홍빛으로 피는 진달래와 철쭉은 봄의 절정을 알리는 봄꽃의 대명사다. 이른

봄에 피는 진달래는 개화 기간이 비교적 짧아 화려한 모습을 충분히 보기 어렵지만 철쭉은 4월부터 5월까지 개화기가 길어 핑크빛 꽃망울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다.

강진 주작산 철쭉 산행을 하려면 4월 중순 이후가 최적이다. 이 시기 전국 사진작가와 등산객이 북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강진군은 지난 2017년부터 주작산의 봄꽃인 진달래와 철쭉 복원을 위해 특화숲 조성사업으로 진달래-철쭉 등 봄꽃 13만 그루를 심고, 매년 숲 관리에 나서는 등 생태계 보전에 힘쓰고 있다.

진달래와 철쭉은 개화기와 색, 모양이 비슷하나 꽃과 잎이 나는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가지 끝에 꽃이 먼저 핀 후 잎이 나면 진달래, 꽃과 잎이 함께 날 경우 철쭉으로 보면 된다.

전남도, 신안서 수산물 드라이브스루 판촉

전남도는 진도 솔비치에 이어 신안 천사대교 인근에서 지난 17일부터 2일간 수산물 드라이브스루 판촉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운 어업인에게 활력을 주고, 소비자에게 싱싱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상생할 인연으로 마련됐다. 관광객과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차 안에서 주문하고 판매하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럭·참돔·동치 등 반건조 생선, 전복점, 민물장어, 홍어회, 곱창김, 천일염, 새우젓 등 수산물 8종과 꾸지뽕차, 조생양파, 팥콩 등 신안 특산물 5종

을 판매했다. 1만원에서 5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시중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팔았고, 신안군은 특산물 구매 시 갑작 선물도 증정해 관광객들이 줄을 이었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와 함께 도내 온라인 전문 쇼핑몰인 '남도장터'를 통해 봄맞이 수산물 20%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촉에 힘을 더했다. 도내 양식수산물을 활용한 전복 간장 비빔, 고추장 비빔, 해초 비빔, 광어 조림, 우럭 맑은탕 등 5종의 가정 간편식도 개발, 대형 유통 기업인 GS 더프레시와 GS25 편의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